

초기성인의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 예측을 위한 구조모형의 분석: 아동기 정서적 학대,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 정서표현 양가성을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a structural model for early adults' fear of romantic intimacy:
Focusing on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disconnection/rejection
early maladaptive schema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김 혜 진
서울 탑 소아청소년과

Kim, Hye-jin
Seoul Top Pediatrics Clinic, Seoul City

김 현 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Kim, Hyun-Soo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a structural model predicting early adults' fear of romantic intimacy. This study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effect of a distal factor,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on early adulthood fear of romantic intimacy and tried to shed light on the mediation path connecting between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early adulthood fear of romantic intimacy.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 hypothetical structural model was proposed. The proposed model is as follows: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ffects the development of disconnection/rejection early maladaptive schema and this increased disconnection/rejection schema further contributes to the increase of early adults' fear of romantic intimacy either directly or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participants were 409 early adults (217 females and 192 males) aged between 18 and 40 who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assessing the variables of this study. The correlation analyses demonstrat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nalyses suggested that the proposed structural model was valid, demonstrating good fits between the proposed hypothetical model and obtained empirical data, thus yielding significant path coefficients for the proposed paths to be valid. Through the study, we could better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early experiences with caretakers and early maladaptive schema in the later development of romantic intimacy issues. Particularly, this study shows this through identifying the specific path of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leading to the early adulthood fear of romantic intimacy.

주제어(Keywords) :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fear of romantic intimacy), 아동기 정서적 학대(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초기부적응 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 정서표현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일반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부교수(E-mail: khs1004@hanyang.ac.kr)

I. 서론

인간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임하라, 2014). 이 중 낭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특히 성인기 초기에 있는 개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데, Erikson(1963), Hatfield(1989), Havighurst(1972)와 같은 발달심리학자들은 낭만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초기성인이 성취해야 할 발달적 과업이라 주장하며 초기성인기 관계성의 핵심이 낭만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초기성인기 낭만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개인이 독립된 개체로서 기능하는데 근간이 된다(Hatfield, 1989). 또한 친밀한 관계로부터 경험한 사랑받는 느낌은 자존감 향상에 기여하며(이건성, 2009), 이렇게 고무된 자존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 스트레스 대처에도 도움을 준다(이태영, 2011).

초기성인기 낭만적 교제는 자아정체감이 발달한 이후 나타나는 타인에 대한 관심 즉 타인에 대한 친밀감 욕구가 표출된 것으로, 이 시기 친밀감 형성의 결핍은 우울, 낮은 의욕, 고독, 감정적 분리, 스트레스에 대한 비효율적인 대응, 자해라는 역기능을 가져온다(Descutner & Thelen, 1991; Levesque, Lafontaine, Bureau, Cloutier, & Dandurand, 2010). 또한, 때에 따라서는 자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Kazan, Caelear, & Batterham, 2016). 이처럼,

친밀감 형성의 결핍은 초기성인기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친밀감 형성의 문제는 초기성인기에만 그 영향이 국한된 것은 아니다. 초기성인기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데, 특히 감정과 사고의 변화를 야기하여 이후 적응에 영향을 준다. 대표적으로 초기성인기 친밀감 형성의 결핍은 신경증 문제(Lehnart, Neyer, & Eccles, 2010) 및 결혼 관계의 어려움을 높이고(정윤경, 2004), 자녀의 낭만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차정화, 전영주, 2002). 이렇듯, 인간의 행복한 삶 영위에 초기성인기 낭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는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연구적 관심이 낭만관계 만족도에 집중된 편으로(김지민, 2015; 박윤경, 2007; 조현정, 2014), 낭만관계 만족에 선행하는 감정인 낭만관계 친밀감을 조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낭만관계 친밀감은 원만하고 바람직한 낭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상대방과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때에만 그 경험이 가능하다(Stone, 1973). 초기성인기 낭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앞서도 소개하였듯 정신 건강과 사회적 기능 수행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을 개방하는 것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Descutner & Thelen, 1991). Descutner와 Thelen(1991)은 이러한 상태를 친밀감 두려움(fear of intimac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심리적인 불안으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개인적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에 제한을 느껴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한다. 친밀감 두려움은 불특정 다수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불안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감정적 교류가 전제되는 밀접한 관계에서 나타나며, 친밀감(intimacy)을 직면할 때 혹은 친밀감을 예견할 때 이에 선행하여 나타나는 공포라 할 수 있다(Descuter & Thelen, 1991). 친밀감 두려움이 높은 사람은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과도하여 관계 자체를 회피함과 동시에 관계에서 친밀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고립에 빠질 위험이 크다.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친밀감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애착(성정아, 2013; 정원희, 2009; Kenny, 1994), 아동기 학대(김인혜, 송현주, 2014; 박은미, 1999; 차미영, 2010; 하수홍, 2012), 초기부적응 도식(임하라, 2014; 조현정, 2014)과 같은 원거리 요인(distal variable)이 상정되고 있다. 또한, 관련 문헌은 정서조절(최나윤, 2013)이나 정서표현 양가성(김준홍, 2009; 정경아, 2015)과 같은 정서관련 요인들이 성인기 친밀감 두려움과 관련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원거리 요인과 친밀감 두려움 간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 보거나 단일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다. 아동기 원거리 변인(distal variable)이 어떤 경로를 거쳐 성인기 친밀감 두려움, 특히 초기성인기 낭만적 관계에서

의 친밀감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지 그 경로를 밝히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원거리 요인(distal variable)과 보다 직접적 영향을 주는 근접 요인(proximal variable) 간의 관련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이들 변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 낭만관계 불만족도에 선행하는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지 밝힐 필요가 제기된다.

생애 초기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이다. 아동이 경험하는 양육자와의 관계는 이후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이지영, 손정락, 2010). 특히, 부모-아동 사이의 애착은 아동의 초기 관계틀이나 관계표상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wlby, 1988; Bretherton & Munholland, 2008). 이 같은 부모-아동 애착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요인이 아동기 학대 경험이다. Dutton(1999)은 아동기 학대 경험은 인지적, 정서적 부분을 포함 다각적 영역에서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성격적 변화까지 일으켜 초기성인기 대인관계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Young과 동료들(Young, 1990, 1998; Young, Klosko, & Weishaar, 2003)은 부모로부터 단절과 거절을 경험한 아동은 정서적 결핍, 유기/불안정, 불신/학대, 사회적 고립/소외, 결함/수치심의 도식을 발달하게 되고 이는 이후 대인관계 상황에서 보상, 회피, 패배인정과 같은 만성적 행동 특성을 낳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여러 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는 중요한 타인과의

의 친밀감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Davis, Petretic-Jackson, & Ting, 2001; Freeman, 1998), 대인관계 관련 변인들과 연하여 많이 연구되고 있다.

앞서 잠깐 소개했지만, 아동기 학대는 초기부적응 도식의 형성과 같은 인지적 체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초기부적응 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은 초기 발달단계에서 형성되는 도식으로, Young(1990)에 따르면 아동기 학대 경험은 그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고 인식과 사고 체계에 변화를 유발하여 이후 심리적 부적응에 기여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Young에 따르면 정서적 결핍, 유기/불안정, 불신/학대, 사회적 고립/소외, 결함/수치심과 관련한 불안정하고 불안한 사고와 인식체계를 만들어 이후 관계를 회피하게 만들거나 관계로부터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게 만든다. 이러한 초기부적응 도식은 비단 일반적 대인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낭만관계 친밀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거나 친밀감 발생 시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자신개방이나 친밀감 대면을 억제 또는 회피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Freeman(1998)은 초기부적응 도식 중 정서적 결핍, 유기/불안정, 불신/학대, 사회적 고립/소외, 결함/수치심의 주제를 포함한 단절 및 거절 영역의 초기부적응 도식이 부모의 정서적 돌봄 부족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경위로 발달한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이 낭만관계 친밀감과 결혼생활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여, 아동기 정

서적 학대, 초기부적응 도식,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타당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한편, 아동기 정서적 학대로부터 야기된 초기부적응 도식은 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동시에 정서표현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이라는 정서표현과 관련된 양가적 상태를 만들어 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서표현 양가성이란 감정을 표현하고픈 욕구와 억제하고픈 욕구를 동시에 경험하는 갈등적 상태로, 정서표현에 대한 무능감, 정서표현의 결과로써 거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체면 유지를 위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로 표출된다(King & Emmons, 1990). 대인관계 상황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상대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서표현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대인관계 상황에서 내면의 정서를 억제하고 정서표현을 두려워하는 것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장정주, 김정모, 2011). 특히, 정서표현의 억제와 두려움은 낭만관계에서 감정의 교류와 친밀감의 형성을 방해하여 친밀한 관계에 대한 낮은 기대와 친밀감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비관적 상황을 예견하게 하는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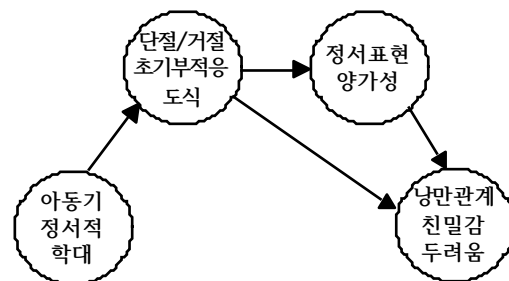
정서표현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갈등과 억압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타내면 대인관계

갈등이 나타나리라 믿는 부정적 도식과 관련이 있었으며(최해연, 민경환, 2007), 이는 정서표현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신념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선행하여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초기성인기 친밀감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표현 양가성의 경로를 파악함에 있어 양가성에 선행하여 나타나며 양가성에 영향을 주는 인지도식의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지적 도식으로 과거 양육자와의 부정적 관계 경험으로부터 발달하게 된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단절/거부 초기부적응 도식은 관계형성과 관련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불신과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특징으로 하고 있어 친밀한 낭만관계 상황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으로 인해 증가된 정서표현 양가성이 다시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관계 양상을 가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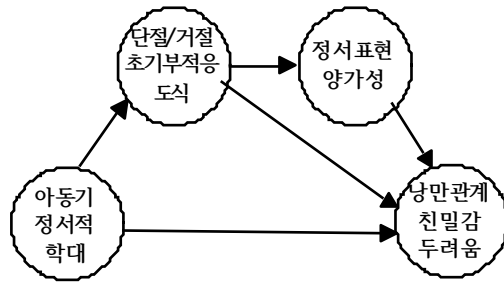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는 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 형성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원거리 및 근접 요인들을 찾고 이들 요인 간 구조적 관계 양상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연구는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초기 요인으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에 관심을 두었고, 이것이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을 발달시키고 도식이 직접경로와 정서표현양가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경로를 통해 초기성인의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모형을 설정,

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초기 요인인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초기성인기 친밀감 두려움 간 상관성이 일부 연구에서 시사되고 있는 바(e.g., 김인혜, 송현주, 2014; 박은미, 1999; 차미영, 2010; 하수홍, 2012),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초기성인기 친밀감 두려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로를 하나 더 추가시킨 경쟁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단일변인의 영향력을 뛰어넘는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아동기 학대경험에서 성인기 관계 친밀감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보다 핵심적 역할을 하는 변인의 확인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연구는 낭만관계 친밀감 발전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는 초기성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 강구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통해 설정한 구조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 경쟁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Levinson et al.(1978)의 발달단계 구분에 따라 초기성인기를 만 18~40세로 정의하고, 이 연령 범위에 있는 미혼, 기혼 남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양한 직업과 학벌의 초기성인을 포함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서울 소재 회사 3곳(건설노동자 포함), 경기 소재 회사 2곳, 서울 소재 대학교 2곳, 경기 소재 대학교 1곳 등 다변화된 지역과 직업군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연구는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사전심의 통과 후 진행하였다. 참가자 모집 광고에 응답한 초기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 실시 전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연구참가에 동의한 초기성인들만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에 응답하도록 요구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10분이 소요되었으며, 참가자는 연구참가의 답례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받았다.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41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409명(남 192명 46.9%, 여 217명 53.1%)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총 409명의 연구참가자의 연령 범위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였으며, 평균연령은 27.39세($SD=6.27$)였다. 총 409명 중 미혼은 294명(71.9%), 기혼은 114명(27.9%), 이혼은 1명(0.2%)이었다.

2. 측정도구

1) 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

본 연구의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은 Descutner와 Thelen(1991)이 개발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of-Intimacy Scale; FIS)를 한선영(2005)이 번안 및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현재 혹은 앞으로 예상되는 낭만관계에서의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묻는 30개 문항과 과거 자신이 가졌던 낭만관계에 대한 평가에 해당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 초점을 둔 30개 문항만을 사용하여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을 측정하였다. 30개의 문항은 친밀한 관계에서 두려움을 예상하는 차원(15문항)과 자기개방을 예상하는 차원(15문항) 2개로 구성되어 있다(임하라, 2014).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친밀한 관계에서 두려움을 예상하는 차원, 자기개방을 예상하는 차원, 전체 30개 문항 척도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각각 .85, .89, .90이

었다.

2) 아동기 정서적 학대

본 연구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Bernstein 등(1998)의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를 이유경(2006)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만 18세 이전에 경험한 신체적학대, 신체적방임, 정서적학대, 정서적방임, 성적학대의 다섯 하위척도 각 5문항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정서적 학대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정서적학대 5문항과 정서적방임 5문항, 총 10문항을 사용하여 아동기 정서적 학대를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어린 시절 경험을 토대로 그 빈도에 따라 4점 Likert 척도(0=전혀 없었다~3=자주 있었다)로 이용하여 평정한다. 정서적방임 문항들은 모두 역채점하여 합산하며, 점수는 높을수록 아동기 정서적학대나 정서적방임 경험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정서적학대, 정서적방임, 그리고 10개 총 문항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각각 .89, .94, .89였다.

3)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

본 연구의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은 Young(1998)이 개발하고 Baranoff, Oei, Cho와 Kwon(2006)이 한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요인구조와 신뢰도를 검증한 단축판 도식질문지(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YSQ-SF)의 단절 및 거절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전체 초기부적응 도식 척도는 5개 영역, 총 15개 도식(각 도식 당 5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단절 및 거절' 초기부적응 영역에 해당하는 정서적결핍, 유기/불안정, 불신/학대, 사회적고립/소외, 결함/수치심의 5개 도식에 해당하는 25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도식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정서적결핍, 유기/불안정, 불신/학대, 사회적 고립/소외, 결함/수치심 5개 도식 각각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순서대로 .79, .86, .81, .92, .82였다. 전체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의 내적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 .93이었다.

4) 정서표현 양가성

본 연구의 정서표현 양가성은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최해연, 민경환(2007)이 국내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타당화한 후 요인 분석한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EQ-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의 결과가 두려워서 표현을 억제하려는 갈등 사이에서 감정을 억압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 척도는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2개 요인,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방어적 양가성(13문항)은 정서적인 표현에 대한 무능감과 정서표현의 결과로써 거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며 관계관여적 양가성(8문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를 고려하거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노력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해연,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 보고한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의 전체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90이고,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89,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7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 자기방어적 양가성 문항, 관계관여적 양가성 문항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각각 .89, .86, .74였다.

3.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에 앞서 연구 도구의 신뢰도, 기술통계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기술통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모형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서로 포함관계에 있는 모형들(nested models)이었기에 절대적, 상대적 적합도 지수를 검토하는 것과 이외에도 χ^2 차이검증을 통해 모형 간 비교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간접효과와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분포정규성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다음으로, 측정 변인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 값을 산출하였다. 왜도와 첨도 값은 <표 1>에 평균 및 표준편차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 연구에 포함된 측정변인들은 왜도 -.01~1.59 사이의 값을, 첨도 .07~2.84 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West, Finch, 그리고 Curran(1995)이 제시한 정규성 가정의 충족 기준인 왜도 절대값<2, 첨도 절대값<8의 범위 내에 속하는 수치들로, 이로써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이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 아동기 정서적 학대 변인들(정서적학대, 정서적방임)은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에 해당하는 5개 변인(정서적결핍, 유기/불안정, 불신/학대, 사회적고립/소외, 결합/수치심), 정서표현 양가성에 해당하는 2개 변인(자기방어적, 관계관여적), 그리고 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두려움에 해당하는 2개 변인(두려움예상, 개방예상)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초기부적응 도식 변인들과의 상관은 .25~.38 범위(all p s<.001), 정서

김혜진·김현수 / 초기성인의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 예측을 위한 구조모형의 분석:
아동기 정서적 학대,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 정서표현 양가성을 중심으로

<표 1>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변인	차원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정서적 학대경험	정서적 학대	2.79	3.25	1.59	2.41
	정서적 방임	3.45	3.92	1.12	0.65
	전체	6.24	6.26	1.21	1.21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	정서적 결핍	9.08	4.24	1.41	2.84
	유기/불안정	10.70	5.01	1.04	0.84
	불신/학대	10.94	4.45	0.95	1.18
	사회적 고립/소외	9.36	4.66	1.31	1.43
	결함/수치	8.77	4.30	1.36	1.44
	전체	48.85	18.10	1.13	1.24
정서표현 양가성	자기-방어적	33.86	9.72	-0.01	-0.38
	관계-관여적	12.60	3.07	-0.30	0.18
	전체	46.46	12.19	-0.05	-0.19
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	두려움 예상	39.04	11.09	0.05	-0.39
	개방 예상	33.75	10.71	0.45	0.07
	전체	72.79	19.06	-0.03	-0.55

<표 2> 아동기 정서적 학대,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 정서표현 양가성, 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 변인 간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정서적학대	--										
2=정서적방임	.52***	--									
3=정서적결핍	.31***	.37***	--								
4=유기/불안정	.30***	.25***	.45***	--							
5=불신/학대	.28***	.30***	.35***	.54***	--						
6=사회적고립/소외	.38***	.36***	.57***	.55***	.56***	--					
7=결함/수치심	.37***	.34***	.57***	.61***	.53***	.74***	--				
8=자기방어적	.28***	.23***	.44***	.56***	.52***	.54***	.56***	--			
9=관계관여적	.19***	.19***	.31***	.52***	.37***	.37***	.42***	.75***	--		
10= 두려움예상	.27***	.20***	.39***	.39***	.31***	.42***	.46***	.52***	.43***	--	
11= 개방예상	.21***	.21***	.25***	.13**	.13**	.21***	.29***	.16**	.07	.53***	--

1~2=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 3~7=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 8~9= 정서표현 양가성, 10~11= 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 ** $p < .01$, *** $p < .001$ (two-tailed).

표현 양가성 변인들과의 상관은 .19~.28 범위(all $ps < .001$),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 변인들과의 상관은 .20~.27 범위였다(all $ps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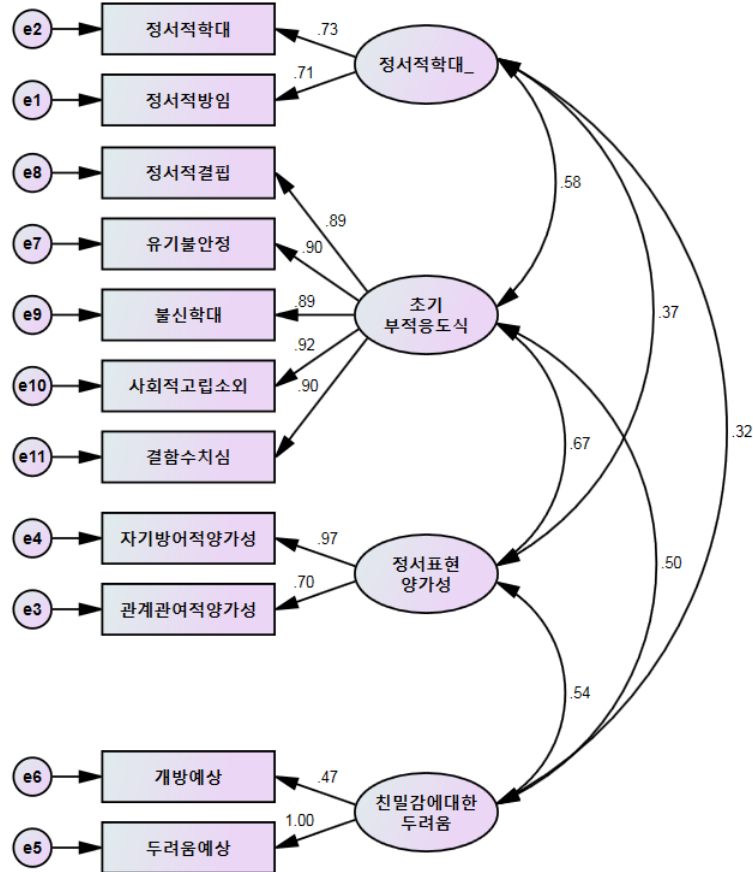
다음으로 5개 초기부적응 도식 변인들과 정서표현 양가성 및 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5개 초기부적응 도식 변인들은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들 및 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 중 두려움 예상 하위요인과 $r_s = .31 \sim .56$ 으로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all $ps < .001$). 비록 그 상관의 정도는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들($r_s = .31 \sim .56$, all $ps < .001$) 및 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의 두려움 예상 하위요인($r_s = .31 \sim .46$, all $ps < .001$)과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5개 초기부적응 도식 변인들은 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 중 개방예상 하위요인과도 $r_s = .13 \sim .29$ 의 수준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all $ps < .01$).

마지막으로, 정서표현 양가성 변인들은 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 변인 중 두려움예상 변인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r_s = .52$ & $.43$, all $ps < .001$), 개방예상 친밀감 두려움 변인과는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자기방어적양가성과 개방예상 친밀감 두려움은 $r = .16$ 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관($p < .01$)을, 관계관여적양가성과 개방예상 친밀감 두려움은 $r = .07$ 로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p > .05$).

3.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에 정서적 확대 경험이 초기 부적응 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활용한 모형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단계별로 검증하는 2단계 접근방식(two-step approach; Anderson & Gerbing, 1988)을 취하여 검증을 진행하였다. 제1단계 측정모형의 검증에서는 각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의 적절성이 검증되고, 제2단계 구조모형의 검증에서는 잠재변인들 간에 설정된 구조적 인과관계의 적절성이 검증된다. 모형 적합도의 평가는 χ^2 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 방법은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제기된다. 특히 표본이 커질수록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과도하게 높아져(Kline, 2005), 다른 지수들을 통한 적합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판정을 위해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 Lewis Index(TL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Standardized Root Mean-square Residual(SRMR)를 검토하였다(홍세희, 2000). 각 적합도 지수의 수용기준은 CFI와 TLI의 경우 .90 이상(홍세희, 2000), SRMR의 경우 .08 이하(배병렬, 2011)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RMSEA의 경우에는 .05 이하면 적합도가 아주 좋은 모형, .085 이하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10 이하면 적합도가 보통 수준인 모형이라 판단한다(Browne

김혜진·김현수 / 초기성인의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 예측을 위한 구조모형의 분석:
 아동기 정서적 학대,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 정서표현 양가성을 중심으로



[그림 3] 측정모형의 검증결과
 (주.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 Cudeck, 1993).

먼저 아동기 정서적 학대를 정서적학대와 정서적방임의 두 요인으로,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을 정서적결핍, 유기/불안정, 불신/학대, 사회적고립/소외, 결합/수치심의 5개 부적응도식 요인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을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두 요인으로, 마지막으로 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을 두려움 예상과 개방 예상의 두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들을 측

정변인으로 설정한 후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해당 하위요인은 측정도구 섹션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그림 3]과 <표 3>, <표 4>와 같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 측정모형의 χ^2 값은 97.07($df=38$, $p<.001$), CFI=.981, TLI=.972, SRMR=.040, RMSEA=.062로, χ^2 지수를 제외한 CFI, TLI, SRMR, RMSEA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모형의 수용기준을 충족하는 것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CFI	TLI	SRMR	RMSEA (90%CI)
측정모형	97.07***	38	.981	.972	.040	.062 (.047-.077)

*** $p < .001$.

<표 4>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 및 표준오차

잠재변인	측정변인	표준화 요인 부하량	비표준화 요인 부하량	표준오차
아동기 정서학대	→정서 적학대	.73	.86	.10
	→정서 적방입	.71	1.00	-
단절/거절 초기 부적응 도식	→정서 적결핍	.89	.95	.04
	→유기/불안정	.90	1.00	-
	→불신/학대	.89	.97	.04
	→사회 고립/소외	.92	.97	.03
	→결함/수치심	.90	1.00	.04
정서표현 양가성	→자기 방어양가성	.97	2.40	.18
	→관계 관여양가성	.70	1.00	-
친밀감 두려움	→개방 예상	.47	.45	.04
	→두려움 예상	1.00	1.00	-

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3]과 <표 4>에서 볼 수 있듯, 각 측정변인들의 해당 잠재변인에의 요인부하량이 표준화값 기준으로 .47~1.00 사이로 나타나, 모두 $\alpha=.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잠재변인들 간 상관에 있어서도 상관 계수가 .32에서 .67 사이로 모두 $\alpha=.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측정모형은 통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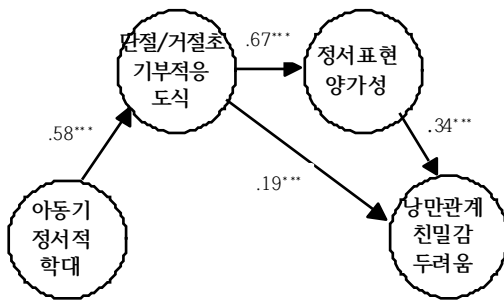
측정모형 검증 결과 측정모형이 수용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어, 다음 단계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서 가정한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가 경험적 자료와 얼마나 합치하는지 구조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결과로 나온 적합도 지수들은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구조적 적합성 평가는 물론 두 모형 간 비교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두 모형간 비교를 위해 χ^2 차이검증도 함께 진행하였다. 결

<표 5>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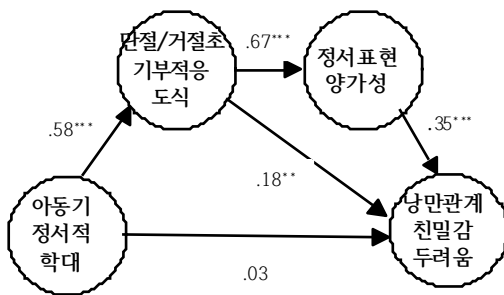
모형	χ^2	df	CFI	TLI	SRMR	RMSEA (90%CI)
연구모형	97.41***	40	.981	.974	.041	.059 (.044-.074)
경쟁모형	97.21***	39	.981	.973	.040	.060 (.046-.076)

$\Delta\chi^2=.20, \Delta df=1, p>.05$

*** $p<.001$.



[그림 4] 연구모형의 구조모형 검증결과
(주.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그림 5] 경쟁 모형의 구조모형 검증결과
(주.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과는 <표 5>와 [그림 4],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이라는 두 상호포함된(nested models) 모

형들의 χ^2 값을 차이 검증한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구조모형의 적합성 판정을 위해 먼저 적합도 지수들(<표 5> 참조)을 살펴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chi^2=97.41$ ($df=40, p<.001$), $CFI=.981$, $TLI=.974$, $SRMR=.041$, $RMSEA=.059$,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chi^2=97.21$ ($df=39, p<.001$), $CFI=.981$, $TLI=.973$, $SRMR=.040$, $RMSEA=.060$ 로, 두 모형 모두가 χ^2 지수를 제외한 CFI, TLI, SRMR, RMSEA 적합도 지수들에서 모두 모형의 수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χ^2 차이검증 결과를 통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중 더 우수한 모형에 대한 판정이 진행되었다. <표 5>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χ^2 값은 97.41, 경쟁모형의 χ^2 값은 97.21로, 자유도 1 손실 대비 경쟁모형이 연구모형에 더해 얻은 χ^2 의 감분은 0.20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Delta\chi^2=.20, \Delta df=1, p>.05$), 보다 간명하면서 동시에 CFI, TLI, SRMR, RMSEA 모형적합도 지수들에서

모형의 수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연구모형을 본 연구의 최종모델로 채택하게 되었다.

더 우수한 것으로 최종 채택된 연구모형의 표준화 및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오차에 대한 정보는 <표 6>과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6>과 [그림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beta=.58, p<.001$)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은 정서표현 양가성($\beta=.67, p<.001$)과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beta=.19, p<.001$)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정서표현 양가성은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을 역시 정적으로 예측하였다($\beta=.34, p<.001$). 반면, [그림 5]의 경쟁모형 경로계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아동기 정서적 학대에서 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 내 간접경로를 통

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는 분석을 진행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Bootstrapping의 샘플 수는 2000개로 설정하였으며, 각 간접효과의 bias-corrected 95% 신뢰구간을 산출하도록 명령하였다. 95% 신뢰구간 내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효과는 $\alpha=.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Bootstrapping을 통해 산출한 각 간접효과의 추정치와 이 추정치의 95% 신뢰구간, 그리고 직접효과와 총효과의 추정치는 <표 7>과 같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에서 초기부적응 도식을 거쳐 정서표현 양가성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39($p<.01$), 아동기 정서적 학대에서 친밀감 두려움으로 가는 두 간접경로("정서적 학대→초기부적응 도식→정서표현 양가성→친밀감 두려움" 경로와 "정서적 학대→초기부적응 도식→친밀감 두려움" 경로)의 효과의 합은 .24($p<.01$), 그리고 초기부적응 도식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을 거

<표 6>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들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오차
아동기 정서적학대 → 초기 부적응도식	.58	.75***	.09
초기 부적응도식 → 정서표현 양가성	.67	.74***	.07
정서표현 양가성 → 친밀감 두려움	.34	1.08***	.17
초기 부적응도식 → 친밀감 두려움	.19	.65*	.19

* $p<.05$, ** $p<.001$.

<표 7> 간접효과를 포함한 경로들의 직접, 간접, 총 효과 분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95%CI)	총효과
정서적 학대 → 정서표현 양가성	-	.39** (.30~.47)	.39**
정서적 학대 → 친밀감 두려움	-	.24** (.12~.34)	.24**
초기부적응도식 → 친밀감 두려움	.19*	.23** (.15~.34)	.42**

95% CI=95% Confidence Interval, Bias-Corrected;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 계수; * $p < .05$, ** $p < .01$.

쳐 친밀감 두려움으로 가는 간접경로의 효과는 .23($p < .01$)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세 간접효과들의 95% 신뢰구간들은 모두 0을 포함하지 있지 않아 세 간접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에서 친밀감 두려움으로의 경로에 포함된 두 간접효과(“정서적 학대→초기부적응 도식→정서표현 양가성→친밀감 두려움” 경로와 “정서적 학대→초기부적응 도식→친밀감 두려움” 경로) 각각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phantom 변인을 활용한 bootstrapping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정서표현 양가성→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 경로의 비표준화 간접효과는 .60($p < .01$), bias-corrected 95% 신뢰구간은 .35~.95였고, 아동기 정서적 학대→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 경로의 비표준화 간접효과는 .49($p < .05$), bias-corrected 95% 신뢰구간은 .12-.87였다.

두 효과 모두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기성인의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원거리 및 근거리 변인들을 확인하고 이들 변인이 어떤 관계를 통해 초기성인의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지 조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문헌고찰을 통해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초기부적응 도식을 원거리 변인, 정서표현 양가성을 근거리 변인으로 설정하고,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으로 발달한 ‘단절 및 거절’ 초기부적응 도식이 친밀감 두려움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해 보았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서로간 상관을 검토한 결과, 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 정서표현 양가성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더 나아가 비록 상관 크기가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서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정서표현 양가성과도 유의한 정적 관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초기성인기 친밀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규명을 목적으로 한 선행 연구들(김인혜, 송현주, 2014; 김준홍, 2009; 박은미, 1999; 이유경, 2006; 정경아, 2015; 정원희, 2009; 조현정, 2014; 최나운, 2013; Kenny, 1994) 그리고 아동기 학대 경험의 파급 효과를 조명한 선행 연구들(임하라, 2014; 차미영, 2010; 최나운, 2013; 하수홍, 2012)에서 이미 확인한 바이다. 이처럼 본 연구의 상관 결과는 언급한 다른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더불어 아동기 학대, 초기부적응 도식, 정서표현 양가성이 초기성인기의 관계 친밀성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과 같은 이후 관계 관련한 경험이나 정보의 처리에 영향을 주는 인지체계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초기성인기 친밀감 두려움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 변인들이 초기성인기 친밀감 두려움에 어떤 경로와 관계를 통해 영향을 주고 있는지 조명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을 높이고 이렇게 높아진 단절/거절 도식이 직접적으로 친밀감 두려움을 높이거나 혹은 정서표현 양가성을 높여 간접적으로 친밀감 두려움을 높이는 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여 이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연구모형은 경험적 자료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변인간 구조를 갖춘 것으로 판정되었다. 또한, 연구모형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 사이에 직접 경로가 추가된 경쟁모형보다 더 간명하고 변인간 경로를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연구모형의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한 결과, 정서적 학대에서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학대로 인해 증가한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이 직접적으로 초기성인의 친밀감 두려움을 높이기도 했지만 정서표현 양가성을 증가시켜 간접적으로 친밀감 두려움을 높인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반면 경쟁모형에서 설정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 간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로 인해 발달한 혹은 증가된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이 성인기의 관계 어려움을 설명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심리도식(schema)이란 개인이 가진 그 개인마다의 독특한 세상을 보는 틀, 혹은 정보를 처리하는 틀로, 이는 개인의 초기 경

험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Young, 1990, 1998). Young과 동료들(Young, 1990, 1998; Young et al., 2003)은 인간에게는 핵심적인 정서 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핵심적 정서 욕구가 차단되거나 만족되지 못했을 때 부적응적 심리도식이 발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으로, 안전, 안정감, 공감, 돌봄, 수용, 존중과 같은 주양육자와의 안정적 애착 욕구가 만족되지 않았거나 차단되었을 때 개인은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버리거나 정서적인 지지,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거라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유기/불안정 도식,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거나 학대하고 모욕하거나 속일 거라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불신/학대 도식, 타인에게 정서적 지지를 받고 싶은 정상적 소망이 충족되지 못할 거라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정서적결핍 도식, 자신에게 결함이 있고 부족하며 여러 면에서 열등하며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거라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결함/수치심 도식,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조직·집단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회적고립/소외 도식 등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도식은 이후 경험이나 정보의 조직화는 물론 기대, 기억, 해석 과정과 같은 다양한 정보처리 과정에 관여하여 개인의 특징적인 대인관계 양상이나 행동 양상을 조형해 간다고 한다. 특히 행동적 측면에서 개인은 굴복하거나 회피 혹은 과잉보상하려는 식의 행동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성인기의 낭만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에서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 유기/불안

정, 불신/학대, 정서적결핍, 결함/수치심, 사회적고립/소외를 특징으로 하는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안정적 애착 욕구의 좌절,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 이후의 대인관계적 상황에서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징에 대한 Young의 이론적 설명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Young의 주장처럼 초기 경험으로 확립된 심리도식이라는 정보처리 틀이 대인관계 영역을 포함 개인의 삶의 영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의 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에 대한 영향이 직접경로와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경로 모두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는 경로가 유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앞서 서론에서도 논의하였지만, 정서표현 양가성은 정서표현에 대한 무능감, 정서표현의 결과로써 거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체면 유지를 위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로 표출된다(King & Emmons, 1990). 이는 단절/거절의 5개 도식(유기/불안정, 불신/학대, 정서적결핍, 결함/수치심, 사회적고립/소외 도식)의 핵심 특징과 연결되며, 이 같은 기본적인 정보처리 속성이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자신의 정서표현에 대한 다양한 신념, 두려움, 기대를 만드는데 관여했을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해 보인다. 앞서도 논의하였지만, 심리도식은

정보처리 다방면에 작용해 개인의 독특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양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본 연구의 초기부적응 도식과 정서 표현 양가성 간 관계는 이러한 심리도식의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속성 형성에의 영향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인의 대인관계, 특히 이성관계를 포함한 낭만관계 친밀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과거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왔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성인의 관계 친밀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단일변인들의 확인을 넘어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폭을 확장시켰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아동기 정서적 학대라는 원거리 변인에서 시작하여 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에 이르는 변화의 인과적 경로를 밝혔다는 점과 이 경로에서 초기부적응 도식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은 이 연구가 주는 주요 가치라 하겠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낭만관계 친밀감 발전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는 초기성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도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는 초기부적응 도식이 초기성인의 낭만관계에서의 친밀감 형성에 주된 방해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을 가진 이들의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임상적 개입이 도움을 될 것으로 사료된다. 대표적으로 도식치료(schema therapy)라 불리는 치료적 접근이 그 예인데, 이 접근은 아동기 충족되지 못한

핵심적 정서욕구로 인해 개인이 부적응의 문제를 보인다고 가정하고 따라서 좌절된 핵심적 정서욕구를 충족시키는 적응적인 방식을 찾도록 내담자를 돕는 데 치료의 목표를 두고 있다. 도식치료를 발달시킨 Young 등(Young et al., 2003)은 특히 치료자가 인지적, 체험적, 행동적, 대인관계적 방략들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부적응적 심리도식에 도전하고 좌절된 핵심 욕구를 충족하는 적응적인 방식을 배워가도록 돕기를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적응 심리도식에 반하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도식의 비합리성에 도전을 가하는 인지적 기법, 심상대화(imagery dialogue)를 통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족받지 못했던 욕구들을 현시점에서 토로하고 그 의미에 직면함으로써 부적응 도식에 대항하도록 하는 체험적 기법, 현재의 선택이나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부적응 심리도식의 영속화에 기여하는지 깨닫게 하고 이를 토대로 자기패배적인 생활패턴(초기부적응 도식에 대한 대처로 굴복, 회피, 과잉보상의 생활패턴을 보이는 경우)을 타파하는 선택이나 결정을 하게 하는 행동적 기법, 그리고 공감적 직면(empathic confrontation; 내담자의 왜곡된 심리도식과 역기능적 대처방식이 나타났을 때 이를 지적함과 동시에 그 심리도식에 공감을 표현하는 것)과 제한된 재양육(limited re-parenting; 어린 시절 원했지만 부모로부터 얻지 못한 것들을 치료적 관계라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치료자가 제공해 주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교정된 대인관계 경험을 얻도록 하는 대인관계적 방략 등이 초기부적응 도식의 변

화를 이끄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고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다양한 직업군과 교육배경을 가진 초기성인을 연구참가자로 포함시키기 위해 다양한 장면과 모집처에서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그럼에도 지역적인 면에서 서울, 경기도에 치중되었고 대학생이 다소 과다 대표된 경향이 있었다. 한국 초기성인군을 대변하는 표본을 가지고 연구결과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는 초기성인을 18~40세로 다소 넓게 정의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후 연구는 초기성인군을 두 연령군 정도로 세분화하여 연구결과가 유사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남녀 간 연구 결과가 유사하게 나오는지 다집단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에서 초기성인기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매개 경로만을 조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경로에서 위협이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재변인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김인혜, 송현주 (2014).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과 대학생의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 자기체계 손상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학부생생활상담연구소, 35(2), 65-78.

김은정, 김진숙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 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05-630.

김준홍 (2009). ACOA 집단과 non-ACOA 집단에서 부모의 정서적 방임학대와 정서표현성이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민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 검증.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윤경 (2007).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대학생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애착과 갈등대처전략을 매개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미 (1999).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성정아 (2013).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건성 (2009). 정서경험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능력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경 (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손정락 (2010).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 간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과 초기부적응 도식의 매개역할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841-851.
- 이태영 (2011).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하라 (2014). 지각된 부모의 부부갈등이 이성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정주, 김정모 (2011). 정서자각에 기초한 정서표현 훈련이 정서자각 정서표현의 억제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861-884.
- 정경아 (2015).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희 (2009). 부모와의 애착관계와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연구: 20, 30대 기독 미혼남성의 이성관계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 (2004). 부부갈등이 성인초기 자녀의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과 자기개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정 (2014).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미영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성인기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정화, 전영주 (2002). 이성교제 커플의 원가족 건강성과 친밀감 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39-57.
- 최나운 (2013). 아동기 외상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자기개념 및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하수홍 (2012). 정서적 학대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련성에서 거절민감성,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선영 (2005). 부모 애착과 이성관계에서 느끼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Baranoff, J., Oei, T. P., Cho, S. H., & Kwon, S. (2006). Factor structure and internal consistency of the 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 in Korean and Australian sampl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93, 133-140.
- Bernstein, D. P., Fink, L., Handelsman, L., Foote, J., Lovejoy, M., Wenzel, K., Sapareto, E., & Ruggiero, J. (1998). Initial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new retrospective measure of child abuse and neglec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1, 1132-1136.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New York, NY: Basic Books.
- Bretherton, I., & Munholland, K. A. (2008). Internal working model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Elaborating a central construct in attachment theory.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second edition: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102-127). New York, NY: Guilford Pres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Beverly Hills, CA: Sage.
- Davis, J. L., Petretic-Jackson, P. A., & Ting, L. (2001). Intimacy dysfunction and trauma symptomatology: Long term correlates of different types of child abus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4, 63-79.
- Descutner, C. J., & Thelen, M. H. (199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ear of intimacy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3, 218-225.
- Dutton, D. G. (1999). Traumatic origins of intimate rage. *Aggressive & Violent Behavior*, 4, 431-447.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Y: Norton Press.
- Freeman, N. (1998). Constructive thinking and early maladaptive schemas as predictors of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Doctoral dissertation, Rosemead School of Psychology, Bida University.
- Hatfield, E. (1988). Passionate and compassionate love. In Sternberg, R. J., Barnes, M. L. (Eds.), *The psychology of love*. (pp. 191-217).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NY: David McKay.
- Kazan, D., Calcar, A. L., & Batterham, P. J. (2016). The impact of intimate partner relationships on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ur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90, 585-598.
- Kenny, M. E. 1994. Quality and correlates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late adolesc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 399-403.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ehnart, J., Neyer, F. J., & Eccles, J. (2010). Long-term effects of social investment: The case of partnering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78, 639-670.
- Levesque, C., Lafontaine, M. F., Bureau, J. F., Cloutier, P., & Dandurand, C. (2010). The influence of romantic attachment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on non-suicidal self-injury in young adul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 474-483.
- Levinson, D. J., Darrow, D., Levinson, M., Klein, E. B., & McKee, B. (1978).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NY: Academic Press.
- Stone, W. F. (1973). Patterns of conformity in couples varying in intima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413-419.
-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focused approach*.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Young, J. E. (1998). *The 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 (1st ed.). New York, NY: Cognitive Therapy Center.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NY: Guilford Press.

원고 접수일 : 2020. 01. 31
수정 원고접수일 : 2020. 03. 09
게재 결정일 : 2020. 03. 23